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b>주임신부</b> Fr. Bartholomew Choi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510) 562-3843 email : meoamor@gmail.com <b>사목회장</b> 이인학 시몬 (408) 234-5037 email : piccpeter@gmail.com	<b>사무실</b>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화, 금 휴무 <b>선종봉사회장</b> 팽현팔 하비에르 (510) 847-3014
--	--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11시 영어미사 : 매월 마지막 주 오후 4시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평일미사	화, 목요일 오후 7:30 수, 금, 토요일 오전 7:30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 목요일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와 함께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시 반 교육관 106호실
	향심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대건회관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지속적인성체조배	매월 첫 금요일 9PM ~ 토요일 7AM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10분

## < 오늘 전례 >

**[제 1독서]** 사도 9,26-31

**[화답송]** 시편 22(21),26ㄴ-27.28과 30ㄱㄴ.30ㄷ-32(◎ 26ㄱ 참조)

◎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

○ 온 세상 땅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 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가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흠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

○ 내 영혼 주님 위해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음이다. ◎

**[제 2독서]** 1요한 3,18-24

**[복음환호송]** 요한 15,4.5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 음]** 요한 15,1-8

성가      입당 35      봉헌 210      성체 180 157      파견 132						
<b>전례 봉사</b>						
구분	부활 제 5주일(4월 29일)		부활 제 6주일(5월 6일)		주님승천대축일(5월 13일)	
	8시 미사	11시 교중미사	8시 미사	11시 교중미사	8시 미사	11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애리 스티라	심승화 헬레나	이정연 골롬바	조선덕 레지나	임승원 루카	황혜정 데레사
제 1 독서	임승원 루카	6구역:김순희 클라라	이명국 바오로	7구역:구창회 미카엘	강신호 요한	이창용 레이몬드
제 2 독서	김진미 마리스텔라	6구역:김찬곤 안드레아	정수영 베네딕타	7구역:정인경 가브리엘라	김영선 안젤라	이경란 베로니카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얼마전에, 병원에 봉사하러 오셨던 분들과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수분들께 ‘믿음의 이유’에 대해 여쭙었습니다. 쉽게 말해, ‘왜 믿으십니까?’ 하고 여쭙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예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친 것에 감사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예전에 따님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친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답변은 쉽게 나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분은 웃으면서 답을 주셨지만, 저는 사정을 알고 있기에 그 답변이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의 답변도 대개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강렬한 어떤 체험을 하지 못했어도, 자신에게 닥치는 상황을 믿음 때문에 달리 받아들이고, 달리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남에게 돈을 떼여도 그 일을 통해 얻은 깨달음에 감사하고, 엉뚱한 화풀이에 당한 일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지요. 그런 말씀들을 듣노라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어떤 증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구나. 믿기 위해 믿는구나.’

믿음은 의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믿음을 갖고자 하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 갑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의지는 오로지 자기 생각과 경험의

틀 속에서만 바라보고, 이해하며,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 대상이 하느님일지라도, 하느님께서 어떤 무엇을 보여주신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각박하고 엄혹한 현실 속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을 지켜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유혹도 많고 시련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그 가지라며, 당신께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유혹과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자체가 열매가 아닐까요? 굳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도, 굳이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성실히 살아가지 못해도, 선교를 많이 하거나 희생이나 자선을 많이 하지 못해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주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을 지켜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하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 세상과 하느님 앞에서 절망하거나 분노 하더라도 결국 다시 주님께 의지하며 그분께 매달려 살고자 애쓰는 그 노력부터가 우리가 맺어내는 열매의 시작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 전에 십자가나무에서 절망을 토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을 끝내 지켜간다면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영수 마태오 신부  
춘천교구 병원사목**

## - 미사 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4/29(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5/1(화)	연	김프란치스코(범식)	가족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김요한/홍모니카	정분다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가족		생	James Lee	이막달레나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5/2(수)	연	연옥영훈	이에스터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연	이알비나(홍태)	이에스터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아네스		연	김프란치스코(범식)	가족
	연	Terence Franks	가족		연	신철기	신엘리사벳(진남)
	연	김막달레나(옥녀)	이마트로나	5/3(목)	연	공동체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연	김프란치스코(범식)	가족		연	김막달레나(옥녀)	이마트로나
	연	김프란치스코(범식)	이골롬바(정연)		연	김프란치스코(범식)	가족
	연	정요셉/서데레사	정베드로		연	이요셉(창순)	이시몬(인학)
	연	하클라라(행자)	김로사리아(경숙)		생	이아고보(원진)	이바오로(영국)
	연	김중화/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생	이정우	전수산나
	생	정카타리나(경희)	찬미성가대	5/4(금)	연	김프란치스코(범식)	가족
	생	정카타리나(상은)	찬미성가대	5/5(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생	김그레고리오 건강	김베드로(광석)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알렉산델/스텔라
	생	윤안젤라	윤루카/루시아		연	박막달레나/정베드로	전데레사(윤자)
	생	Matthis Grupe	윤루카/루시아		연	김프란치스코(범식)	가족
	생	김세실리아(근원)	임비비안나(유지)		생	꾸리아활성화	꾸리아
	생	임안젤라(승주)	유니온반		생	강루시아(수영)	익명
	생	김카타리나(아례)	임루시아		생	캐티가정	전데레사(윤자)
	생	한헬레나(현자)	강안나(신옥)		생	송윤관	송베로니카

◆ 영어미사 : 오늘 오후 4시

◆ 성시간

5월 3일(목) 저녁 7시 30분 미사와 함께 합니다.

◆ 환자 봉성체

5월 3일(목) 오전  
\* 사무실이나 각 반장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 성모신심미사

5월 5일(토) 아침 7시 30분  
- 꾸리아 월례회 : 미사 후 교육관 106호실

◆ 지속적인 성체 조배

5월 4일(금) 저녁 9시 ~ 5월 5일(토) 아침 7시

◆ 성모의 밤

일시 : 5월 5일(토) 저녁 8시  
\* 모든 교우분들은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봉헌을 준비해 주십시오.  
\* 단체별 꽃봉헌은 각 단체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 성모의 밤 제대꽃 봉헌 - 사무실로 신청

◆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

부활시기 동안 신앙의 신비여 응답송을 다양식으로 합니다.  
\*\* 십자가의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 Rice Bowl 회수(오늘까지)

사순시기 동안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봉헌해 오신 Rice Bowl을 사무실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 오클랜드 공동체 ME 모임

일시 : 오늘 오후 1시  
장소 : 교육관 201호  
대상 : ME 부부, Deeper 봉사자  
문의 : 윤루카/루시아 510-282-2271

◆ 서중부 남성 제 13차 꾸르실료 참가자 모집

일시 : 6월 21일(목) ~ 6월 24일(일) 3박 4일  
장소 : Holy Redeemer Center, Oakland  
대상 : 각 성당의 견진성사를 받은 모든 신자(영어권)  
문의 및 신청 : 간사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5월 구역반 모임

7	월넛크릭	5월23일(수) 7시	허순구 라우렌시오 맥
---	------	-------------	-------------

◆ 창세기/탈출기/마르코 성서모임 그룹원 모집

신청 : 사무실  
\* 성서모임을 마치신 분들은 노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 교리공부 교재인 Youcat 을 성물방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친교실 무대 쪽에서 모여 각 반으로 이동합니다.

◆ 오늘 아침미사 간식은 구창회 미카엘/마르티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점심 봉사는 유니온반에서 콩나물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교와 모임 ♥

- \* 마두명 성서모임 : 오늘 점심식사 후 106호실
- \* 구반장회의 : 오늘 점심식사 후 107호실
- \* 재정위원회의 : 5월 6일 점심식사 후 103호실
- \* 건강 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하이킹클럽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Redwood Regional Park 주차장 집합
- \* 대건탁구클럽 문의 : 510-913-3489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카타리나(4/29) : 정경희, 이상주, 김아레, 이휘라, 정상은
- \* 야고보(5/3) : 이재우, 안해준

한국학교 소식

- 5월 5일 : 북가주협의회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 5월 6일(일) : 한국학교 기금마련 걷기행사 홍보
- 5월12일: 종강식 및 학습 발표회

2018 - 2019 새학기 등록 받습니다.

개강일 : 9월 8일 (토)

문의 : 교감 정인경 ikkim324@yahoo.com

- 지난 주 우리의 정성

구분	8시 미사	11시 교중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65	195	260
헌 금	\$499	\$1,148	\$1,647

< 교무금 > \$4,807

정기환(5-8) 원광희(1-4) 정태준(1-3) 정창희(4) 조상희(5) 영명련(4)  
이경섭(3-4) 장익(4) 홍상미(4) 구창희(5-6) 조덕행(3-4) 하숙연(4-6)  
최순일(4) 조진행(5) 김정탁(3-4) 지영남(1-4) 양우선(3-4) 최윤기(4)  
김숙자(5-6) 김근원(4-5) 박추웅(4-6) 이선희(4) 최대연(4) 육승주(5)  
김관수(4-5)

< 성소후원금 > \$180

정창희(4) 이경섭(3-4) 최윤기(4) 박추웅(1-12) 이선희(4)

< Bishop's Appeal > \$60

이경섭(3-4) 최윤기(4) 이선희(4)

< 감사헌금 > 김범식

\* 선종하신 김범식 가정에서 상조회에서 받은 조의금 \$1,200을 성당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또한 선종봉사회에 \$500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2020 비전 목표 >

- ♡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 ♡ 신바람 나는 공동체
- (성령의 은총이 가득한 공동체)

< 실천사항 >

1.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2.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4.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 성당 시설이나 비품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 오클랜드 교구 내 한인성당 안내 \*\*\*\*\*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주임신부 ; Fr. John Kim 김종광 사도요한

주일미사 : 오전 9시(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평일미사 : 화, 수, 토요일 오전 9시 30분/목요일 저녁 8시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사무실 전화 : 925-600-0177 [www.tvkcc.org](http://www.tvkcc.org)

<p>Blatteis Realty Residential Investment Services Business Commercial Retail &amp; Commercial Leasing/Commercial Property Management Specialists Tenant Services</p> <p><b>루시아윤 부동산</b> luciayoonrealtor@gmail.com CABB(California Business Broker) 직통415)407-0016/925)376-3023</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b>신세계 여행사</b> SHINSEGAE TRAVEL ☎ 510-688-0157 (레이몬드)</p>	<p>정 태준(안토니오) 자동차정비 &amp; 바디 Work 929 38th Ave. Oakland, CA 94601 ☎ 510-552-4418 Fax 510-535-0818</p>	<p>한인 크레딧 유니온은 금융기관입니다. 자동차대출, 체크링, 적금 2368 El Camino Real Santa Clara (408) 260-0900</p>
<p>송 이 웅 법 무 (510)292-6050 ldanea.song@gmail.com 1723 Telegraph Oakland</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 (510)504-9250</p>	<p>J &amp;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 236-0550 강 요한</p>	<p>맥정(말가리다) 공인세무사 · Income Tax · 세무장부정리 · 신규회사 설립 · 경영, 재정상담 ☎ (510)893-2377 2633 Telegraph Ave.#213 Oakland</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건강상담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b>State Farm</b> 데비 양(데보라) 보험 3484 Stevens Creek Blvd. San Jose, CA 95117 408-261-1623   Lic.#0G51968</p>	<p>피아노/작곡 레슨 이정희 마메르토 연세대 작곡과 McNally Smith College of Music 실용음악 석사 651-703-1550 popianojh@naver.com</p>	<p>+성지순례 전문+ <b>ANGEL</b> Tour &amp; Travel, Inc. 757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대표: 이 경혜 안젤라 Tel. 213-999-6294 e-mail: angeltourtravel@gmail.com www.angeltourtravel.com</p>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